『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7권 2호(2011년 12월) 127-144

옷을 통해 읽기: 버지니아 울프의 『올란도』

손 현 주

1. 울프와 패션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울프는 "축구와 스포츠는 '중요한' 반면, 패션을 숭상하고 옷을 구매하는 것은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를 비판한다(70). 패션은 20세기 산업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화적 요소로서, 현대 도시풍경은 거리 가득 넘쳐나는 상점들과 쇼 윈도우를 장식한 형형색색의 옷과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과, 유행에 맞춰 차려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녀들을 빼 놓을 수 없다. 입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수공업적으로 생산되던 의복이 대량생산 체제로 들어서면서 몸이 오히려 생산된 의복에 맞추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현대인의 의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패션이 현대인의 삶과 의식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은 모더니즘 문학의 발전과정과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시기 작가의 작품에서 패션과 옷에 관한 관심과 사고를 읽어 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 흥미로운 시각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일찍이 울프는 의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는 옷이 팔이나 가슴의 형태를 갖도록 만들지만, 옷은 우리의 가슴, 두뇌, 혀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다"고 주장했다(*Orlando* 132). 울프의 패션과 옷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어린 시

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기록한 방대한 일기에는 그의 옷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자의식이 강해, 혹여 촌스러운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했고, 사교계 모임에서 옷차림 때문에 비판 받을까 신경을 썼다. 한편 레너드 울프는 거리를 지날 때 사람들이 울프를 보면 "멈춰 서서 쳐다보고 옆사람을 쿡 찌르거나 심지어 웃음을 터뜨릴 만큼" 울프의 차림새가 독특했었다고 회고했다(Woolf, L. 29). 울프는 또한 주변 지인들의 차림새에도 민감해서 일기와 편지에는 이들에 대한 위트에 찬 묘사가 가득하다. 예를 들어 작가 이디스 싯웰(Edith Sitwell)이 방문했을 때, 그녀가 "무척 뚱뚱해지고 분을 잔뜩 바르고, 은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터번을 두른 모습이 마치 상아로 만든 코끼리 같다"고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Diary* 3 308)

싯웰의 차림이 독특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1920-30년대는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여성복 개혁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패션은 이제 전통과 혁신 사이를 넘나들며 자신의 사상과 사회적 경향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코드가 되어 있었다. 죠지 시멜(Geroge Simmel)에 따르면 사회발전의 역사는 근본적인 두 개의 원리가 있는데, 순응과 모방, 그리고 차별화와 개성추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패션은 이 양 극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좋은 예가 된다. 전통에 따른 관습적 의상을 입고 순응하는 부류와 의식적으로 '다름'을 드러내고 저항하는 부류가 그것이다. 187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여성복에 대한 개혁운동은 여성의 신체를 억압하고 활동을 제약하던 의복에서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려는 것으로 여성참정권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극단에서 1920-30년대의 신여성, 뉴 우먼, 또는 플리퍼(flipper)라 불리던 이들은 남성복을 차용하여 바지와 재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는 자신들의 이상과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이었고, 사회 문화적인 저항의 표시이면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자신의 레즈비언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고독의 우물』(*The Well of Loneliness*)로 소송에까지 휘말렸던 레드클리프 홀(Radclyffe-Hall)은 짧은 숏커트 머리에 남성의 양복을 착용했고, 울프와 친분이 두터웠던 작곡가이자 영국최초의 여성지휘자였던 에델 스미스(Ethel Smyth)는 남성이 독점하던 지휘자의 영역을 새로이 개척하며 무대에 설 때는 항상 나폴레옹식 삼각모를 쓰고 등장했다(*Diary* 5 209). 또한 울프의 연인이자 소설 『올란도』(*Orlando*)의 실제 모델인 비타 색빌 웨스트(Vita Sackville-West)는 남성복을 입고 레즈비언 연인과 파

리거리를 활보하는 등 자신의 양성애적 성향을 복장으로 드러내는 데 서슴지 않았다.

울프 자신의 회고록인 「하이드 파크 게이트 22번지」("22 Hyde Park Gate")에는 옷이 갖는 상징적 코드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울프의 어머니 쥴리아 스티븐(Julia Stephen)은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딸 스텔라(Stella Duckworth)와 죠지(Geroge Duckworth), 제럴드(Gerald Duckworth)를 데리고 울프의 아버지인 레슬리 스티븐(Leslie Stephen)에게 재가했다. 전 남편이었던 제임스 덕워스(James Duckworth)는 귀족출신의 법관이었고 울프의 이복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부유했다. 반면에 울프의 친 형제 자매들은 그다지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았다. 더구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은 극도로 검소함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울프가 옷에 대해 쓸 수 있는 예산은 제한적이었다. 상류사회 사교계에 출입했던 이복오빠들은 울프와 언니 바네사(Vanessa)를 사교모임에 대동하기 시작했고 자매는 그에 걸맞은 격식 있는 드레스를 차려입어야 했다. 당시 사교계는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를 그대로 계승한 보수적인 분위기였다. 「하이드 파크 게이트 22번지」에서 울프는 자신의 10대와 20대 초를 회상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풍경을 한 지붕아래 전통을 고수하는 빅토리아조 세대와 신세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묘사했다. 거기서 불가피하게 빚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울프의 드레스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번은 값비싼 드레스를 장만할 수 없었던 울프가 재치를 발휘하여 자신만의 드레스를 디자인해 입었다. 울프는 일반적인 드레스용 옷감 대신 가구나 커튼용도로 쓰이는 값싼 초록색 천을 이용해 드레스를 맞추었다. 파티에 가기 위해 그 옷을 입고 나선 울프를 보고 제임스 덕워스는 당장 그 끔찍한 것을 찢어 버리라고 호통을 쳤다(*MB* 150-1). 울프는 당시를 회고하며 "그는 일종의 반란을, 사회적 기준에 대한 반기를 드는 것을 감지했고," "내 초록 드레스는 분명 드러나지 않게 그 자신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단지 미적 감각이나 유행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린 여동생이 감히 당시의 기존 질서에 항거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울프는 죠지 덕워스가 얼마나 전통과 기존질서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강조하며 그러한 그에게 있어 전통에 항거하며 지적이며 독립된 여성이 되려는 이복 여동생들은 불가한 존재들이었다. 그는 "귀족부인감"인 빼어난 미모의 바네사가 사교계에 나가 남자를 골라 신분상승을 꾀하는 대신 화가

가 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148).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이 죽자,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이복형제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어졌고, 바네사와 토비(Thoby Stephen), 아드리안(Adrian Stephen)과 함께 울프 형제는 당시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인 젊은 지성들이 모여살던 블룸즈베리로 거처를 옮겼다. 여기서 이들은 과거 하이드파크게이트에서 지켜야 했던 관습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며 자유를 만끽했다. 새 거처를 드나드는 토비의 케임브릿지 친구들은 "예의 범절도 없고" 울프와 바네사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예쁜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디들은 되는 대로 입은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울프와 바네사는 더 이상 저녁식사를 위해 '차려입을' 필요가 없었고, "추상적 대화"가 그들의 일상을 채웠다(190-2). 당시 블룸즈베리는 급진적 여권운동의 본산으로 거리에는 여성참정권을 외치는 포스터가 붙고 집회가 열리던 장이었다.

죠지 덕워스가 강요했던 사교계 복장이 "남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목표여서 낮에 입는 옷보다 좀 더 멋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어야 했던 반면, 블룸즈베리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가 가진 의복의 자유는 울프가 해변가의 하루를 묘사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Passionate Apprentice* 168).

> 사람들은 남의 눈이 무서워 덮고 있던 외피를 벗어던진 것 같아 보인다. 여기서는 맨 머리와 맨 손을 보고 놀라지 말자고 다들 합의한 것 같아 보인다. 바람결에 날리는 머리칼과 목에 걸친 수영타월도 그냥 자연스런 것으로 보아 넘기기로 한 것 같다.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옷차림이 그을린 얼굴과 자유로이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에 반영되어 있다. 여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눈길에 거부권을 주장하듯이 의식적으로 또 거의 도전적으로 치마를 짧게 걷고 모자와 외투를 벗어 던진다. (*PA* 296)

옷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 외에 개인 차원에서도 작용한다. 코펜(R.S Koppen)은 의복과 신체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지적한다. "의복은 신체를 이미지이자 사물로 제시하며, 신체에 대해 자아의 상상적 연장이자 비유기체적 타자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2). 인간이 의복없이 나체로 타인과 만나는 일을 극히 예외적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복으로 구체화된 타자와 접촉한다. 우리가 가진 타자에 대한 최초의 기억도 대부분 의복을 통한 것이다. 일례로 울프는

『기억의 소묘』에서 원초적 기억으로 회귀하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그녀의 옷에 수놓인 꽃무늬를 들여다 본 것을 회상한다.

> 최초의 기억. 이것은 검은 바탕에 빨간색 보라색 꽃들이었다. 우리 어머니의 옷이었다. 어머니는 기차인지 마차인지에 앉아 계셨고 나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입고 계신 꽃무늬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까만 바탕에 수놓인 보라, 빨강, 파랑 꽃을 볼 수 있다. 그건 분명 아네모네였을 것이다. (*MB* 64)

자아와 타자의 경계이며 자아가 타자와 접촉하는 최전선을 이루는 의복은 이렇게 그것을 입는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울프는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옷에 대한 첨예한 인식은 블룸즈베리 구성원들의 팬시드레스 파티에서 누드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인 행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극단적인 예로 "드레드넛 혹스(The Dreadnought Hoax)"사건을 들 수 있다.

1910년 2월 7일 버지니아 울프와 아드리안 스티븐, 호레이스 코울(Horace de Vere Cole), 안토니 벅스턴(Anthony Buxton), 던컨 그란트(Duncan Grant) 등 몇몇 블룸즈베리 젊은이들이 템즈 강에 정박 중이던 당시 대영제국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드레드넛 함을 상대로 장난을 친 사건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들 젊은이들이 아비시니아 왕족과 사절단으로 분장하고 영국 외교부를 통해 정식으로 드레드넛 함을 시찰하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고, 가짜임을 눈치 채지 못한 외교부는 전신을 통해 시찰을 허가해 주었다. 무대 분장사의 도움을 받아 아프리카 왕족과 외교사절단으로 분장한 이들은 의심받지 않고 국빈대접을 받으며 영국군의 극비사항인 배 내부를 시찰하고 돌아간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이들 중 한 사람이 신문사에 제보를 하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영국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다 (Lee 282-6).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이 사건이 "옷을 통한 기존질서에 대한 풍자"라고 보았다(283). 이러한 풍자는 아비시니아의 왕자로 변장했던 울프의 경우 더욱 첨예화 된다. 여기서 울프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그리고 백인에서 흑인으로 변신함으로써 남성 중심, 유럽 백인 중심의 위계질서에 도전한 것이다.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장난의 참여자 중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상류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Lee 286). 리는 울프와 친구들의 이러한 장난은 블룸즈베리 성원들이 꾸준히 즐겨온 팬시드레

스 파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한다고 지적한다(151). 이들 파티는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복장으로 카니발과 같은 전복적인 기제를 제공하고 실험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블룸즈베리의 자유로운 실험과 도전은 로저 프라이(Roger Fry)가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오메가 공방(The Omega Workshop)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오메가 공방은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를 의상에 그대로 접목시킨 옷감과 여성의 몸을 속박하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디자인의 옷을 내놓았고, 비록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지식인들과 일부 계층에 전통적인 복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의복의 혁신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Koppen 22). 또한 로저 프라이가 주관했던 런던의 인상파화가 전시회에 울프와 바네사는 고갱의 그림에 등장하는 타이티 여인들의 모습을 흉내내어, 옷 대신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천으로 몸을 감싼 채 "외설스런 고갱 걸"로 분장하고 행사장에 등장하기도 했다(25).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당시 블룸즈베리 구성원들의 일상화된 자유와 개성의 추구라는 틀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최근 공개된 블룸즈베리 사진 앨범에는 화가이며 동성애자였고, 분방한 사생활로 널리 알려진 도라 캐링턴(Dora Carington)을 포함한 몇몇 젊은 블룸즈베리 성원들이 해변과 정원 등지에서 누드로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전통과 인습에 대한 도전을 엿볼 수 있게 한다.[1] 이러한 풍토에서 울프의 고갱 걸로의 분장이나 아비시니아 왕자로의 변신 등은 혼자만의 특출난 행동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옷의 사회 문화적 기능과 전복적 성격은 모더니즘 문학과의 관계에서도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울프는 소설『올란도』에서 400년의 세월 동안 36세가 되는 젊은 귀족 올란도의 삶과 문학을 옷과 개인, 나아가 옷과 시대와 문학의 관계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

1) Beth Hale, "Laid bare: the Bloomsbury set revealed in fascinating collection of documents and nude photos."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1259029/Laid-bare-Bloomsbury-set-revelaed-fascinating-collection-documents-nude-photos.html#ixzz15W4LtwAv.

2. 옷을 통해 『올란도』 다시 읽기

1928년에 출간된 울프의 소설 『올란도』는 당시 귀족 출신의 여성작가 비타 색빌 웨스트를 모델로 하고 있다. 울프의 동성 연인이기도 했던 비타는 방이 무려 365개가 있다는 대저택 놀(Knole)을 소유한 색빌 백작의 사생아로, 놀의 소유권에 대한 긴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자유분방한 사생활과 양성애적인 애정행각으로 유명했다. 울프는 이 소설에 "전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올란도"로 분장한 실제 비타의 사진을 곳곳에 배치하여, 전기문학과 소설,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 대해 전복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조에 태어나 10대 때부터 「참나무」라는 시를 쓰기 시작한 올란도는 이후 400년을 살아 현재 소설이 출판된 1928년 10월 11일에 이르기까지 귀족청년에서 터키대사, 집시 여인, 영국 사교계의 귀부인, 여성문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성숙하여 울프가 이상으로 삼는 "양성적인 정신"을 가진 작가로 성장하는 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이다. 울프는 이 작품을 "작가의 휴가"라고 불렀고, 다른 여타 소설에서보다 자유로운 위트와 풍자가 가득하다. "작가의 휴가"이기 때문에 평소 해보지 못했던 일탈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 즉, 여성과 글쓰기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있다(*Diary* 3 168).

이 소설이 출간되고 이듬해에 나온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쥬디스 셰익스피어(Judith Shakespeare)라는 소녀를 등장시킨다. 셰익스피어의 이름 없는 누이로 셰익스피어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당시 여성으로 태어났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허구적 설정을 통해 여성과 문학의 문제를 현실적 역사 속에서 실감나게 보여준다. 쥬디스가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느 겨울날 광기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성이 처했던 현실이라면, 『올란도』에서 울프는 쥬디스 셰익스피어의 귀족판, 양성판 성장기를 그려내고 있다 하겠다. 척박한 토양에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비운의 쥬디스로 하여금 엘리자베스시대 최고의 젊고 재능있는 귀족으로 태어나게 해 모든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며 폭넓은 삶의 경험을 통해 각 시대가 줄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을 흡수하고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두루 섭렵하게 한다. 그 후 18세기가 되어 현실에서 여성작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러 여성으로 변모하여 남자가 누리던 특권과 자유대

신 여성적 미덕을 받아들이게 해, 20세기 초 현재에 이르러 가장 이상적인 문학을 꽃피울 수 있는 바탕을 갖춘 양성적 여성작가가 되기까지의 삶과 문학의 성장과정을 그린 진정 "작가의 휴가"에 쓴 "판타지 소설"이다. 드레드넛 혹스에서 아프리카 왕자로 변장하고 대영제국의 제국주의적 질서에 조소를 보냈던 것처럼, 작가는 어쩌면 한 맺힌 현실에 대해 극단적인 풍자와 조소를 날리며 판타지로서 꿈을 펼쳐보는 팬시드레스 파티 같은 작품을 썼는지도 모른다.

『올란도』가 성(gender)과 글쓰기에 관한 고찰이라고 볼 때, 특기할 사항은 성과 문학이 '옷'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울프는 올란도라는 인물을 통해 "유동적"(vacillate)인 성정체성의 문제를 의복과의 역학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 양성간의 차이는 기쁘게도 아주 심오한 어떤 것이다. 옷이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올란도로 하여금 여자 옷을 선택하게 하고, 여자임을 자처하게 한 것이다. [...] 두 성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섞여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양성은 유동적이며,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옷일 뿐이고, 그 속의 성은 겉모습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흔히 있다. 이로써 생기는 분규와 혼란은 누구나 경험한 바 있다. (132-3)

이 작품에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입은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구성하고 시대를 반영하고, 때로는 이에 저항하는 기제로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올란도의 경우 "그녀의 내면에는 남자와 여자가 혼재해 있어, 하나의 성이 전면에 나서는가 하면 다음에는 다른 성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올란도가 선택하는 '옷'을 통해 독자는 올란도의 성적 변화와 문학적 성장을 추적해 볼 수 있다. 하여 '옷'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을 다시 읽음으로써 모더니즘 작가로서 블룸즈베리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울프의 시각이 어떻게 옷과 문학의 관계를 엮어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올란도는 작품의 첫 구절, "그는 당대의 복장으로 남녀를 구별하는 것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그가 남성이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라고 소개되는데 그가 "남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대비되어 오히려 그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 놓는다(11). 곧이어 여왕행차에 그는 새

로이 단장을 한다. "심홍색의 바지를 입고, 레이스 칼라를 달고, 테피터 조끼를 입고, 겹 달리아만큼이나 큰 장미꽃 장식이 달린 구두를 신었다"(16). 이러한 과장되고 화려한 의상은 당시의 문체에도 반영되어 있어 올란도는 장황하고 화려한 문체로 시를 썼다. 그는 "25세가 되기 전에 47개의 희곡, 사극, 로맨스와 시를 썼는데, 어떤 것은 산문으로, 어떤 것은 운문으로, 또 어떤 것은 프랑스어로, 다른 것들은 이탈리아어로 썼는데, 모두가 낭만적이고 길었다." 그는 이 글들을 어머니께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책을 쓴다는 것은 더군다나 출판한다는 것은 귀족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치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54). 울프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생일선물로 받은 엘리자베스조 시인 해클룻(Hakluyt)의 모험담에 매료되어 그 문체를 흉내 내곤 했었다(*D3* 271).[2] 『올란도』에서 울프는 청년귀족으로 하여금 자신이 문학적 이상향으로 여기는 엘리자베스조의 시대정신과 토양을 마음껏 흡수하도록 허용하며 장황하고 화려한 당대의 문체로 습작을 하게 한다. 울프는 이 시대의 총아로 셰익스피어를 꼽으며 그를 남성과 여성성을 결합하는 양성성(androgynous)을 가진 이상적 작가라 칭송했다. 그러한 셰익스피어가 올란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여왕행차를 맞으러 가는 길에 올란도는 하인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본다. "거기 하인의 저녁 식탁 옆에 커다란 맥주잔을 놓고, 종이를 마주한 채, 상당히 뚱뚱하고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주름 옷깃은 더러워보였으며 갈색 무지의 거친 나사 천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 펜을 잡고 있었지만 글을 쓰고 있지는 않았다. [...] 이 사람이 시인이었나? 시를 쓰고 있었나?"(16). 그의 모습은 400년이 지나도록 올란도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고, 마침내 자신의 시를 완성하고 올란도는 먼 기억 속의 꾀죄죄한 모습의 이 남자를 떠올리며 아마도 그는 "셰 - 피 - 어"였을 것이라 깨닫게 된다(215). 이 순간은 그가 셰익스피어처럼 양성이 조화로운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올란도는 "폭넓은 취향"(32)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과 어울렸고(여왕에 이르기까지) "밤이면 그는 목에 걸린 별모양의 훈장과, 무릎의 가터 훈장을 감추기 위해 회색 망토로 몸을 감싸고" 서민들이 모이는 술집이나 공터를 전전하며

2) Richard Hakluyt 16세기 영국의 문인으로 신세계로의 항해와 정착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울프는 15세 때 아버지 Leslie Stephen으로부터 Hakluyt 전집을 선물받고 이에 매료되었었다고 회고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33). 이러한 밤 나들이에 싫증이 났을 때, 그는 "회색 망토"를 장롱 속에 넣었다(37). 올란도의 "폭넓은 취향"과 경험은 그의 폭넓은 의복의 선택권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터키에 영국대사로 취임하여 지내는 동안에 그는 강렬한 타국의 자연과 문화 속에서 영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향수를 뿌리고, 머리에 컬을 넣고, 기름을 바르고" 업무를 보지만, "때때로 밤늦게 보초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장을 하고 대문을 빠져나가곤 했다"(86). 이후 여자가 되어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올란도의 변장은 계속되었다. 그는 여자였지만 "옷장을 열고, 베네치아 레이스로 화려하게 장식된 까만 벨벳 옷을 골랐다. 그 옷은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완벽하게 몸에 맞았고 옷을 입고 나니 그녀는 어김없는 귀공자였다"(149). "올란도는 남자처럼 보였고, 남자처럼 느꼈고, 남자처럼 말을 했다"(150). 이러한 변장, 특히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남성이 여성으로 변장하는 트렌스베스타이트적 관행은 올란도에게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한 자유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당시 올란도가 이 옷 저 옷 자주 갈아입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적을 기록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 그녀의 성은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자주 변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해서 그녀가 두 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도 의심할 바가 없다. 인생의 즐거움은 늘어나고 경험은 풍부해 졌다. 올란도는 바지를 입은 성실한 모습에서 페티코트를 입은 매혹적인 여성으로 변모하면서 두 성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똑같이 즐겼다. (153)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고, 특히 양성의 특성을 모두 결합한 조화로운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적인 경험이 필수 불가결한데 올란도는 '옷'을 바꿔 입음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한다. 이러한 트렌스베스타이트적 유희는 울프와 블룸즈베리 그룹에게 낯설지 않은 관행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자유로이 올란도에 차용함으로써 울프는 '옷'과 '성'과 '글쓰기'의 관계를 탐구하고 만화경적인 판타지를 전개해 나간다. 올란도에 있어 '옷'은 배역을 연기하기 위한 무대 의상같이 상황에 따라 그가 필요한 자아의 모습을 연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당시 레즈비언들은 남성복 외에도 동양풍의 바지를 즐겨 입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여성적 복장을 거부하고 터키나 중국, 집시 풍의 남녀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복장으로 기존 질서에 항거했다. 블레어(K. Blair)는 "집시와 레즈비언 욕망(Gypsies and Lesbian Desire)"이라는 글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다. 화려하고 성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집시 복장이나 머나먼 이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성구분이 애매한 터키식 바지가 레즈비언 여성들의 복장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터키 대사로 임명되어 이국 문화를 즐기던 올란도는 여성으로 변신하고 난 이후 "몸을 씻고, 남녀 겸용의 터키풍 윗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당나귀를 타고 집시들과 함께 살기 위해 떠난다(166). 이후 영국에 돌아와서도 올란도는 "남녀의 구별이 애매한 중국풍의 헐렁한 가운을 걸치고 책에 파묻혀서 오전을 보내다가, 같은 의상으로 한 두 사람의 의뢰인을 맞는다." 그리고 정원을 손질할 때는 "반바지가 편하다. 그리고 꽃무늬 테피터로 갈아입고 리치몬드로 마차를 타고 가서 청혼을 받는데 안성맞춤이다. 소송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입는 황갈색 가운을 입고," "마침내 밤이 오면, 종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귀족이 되어 모험을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렸다"(153). 청년 귀족 올란도가 사랑에 빠진 러시아 공주 사샤 또한 "러시아 풍의 느슨한 반코트와 바지 때문에 성별을 알아보기 힘든" 인물이었고 이것이 올란도의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했다(26). 마침내 올란도는 사랑의 도피를 계획하고 그녀를 기다리면서 사샤가 "남자처럼 장화를 신고, 망토와 바지를 입고" 혼자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42).

이처럼 올란도의 세계에 있어 옷은 성별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은폐하기도 하고 때론 입는 사람에게 성별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 여성으로 변신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올란도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스커트"를 입고 "귀부인"이 되는 것이었다. 올란도는 "당시 여인들이 입는 복장 일습을 샀으며, 당시 지체 높은 영국의 젊은 여인네들의 복장으로" 영국행 배에 올랐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이 순간까지 자신의 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작가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터키식 바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고 분석한다. 이제 "양다리에 스커트가 말려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선장이 그럴 수 없이 정중하게 그녀를 위해 갑판에 차양을 치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야 그녀는 비로소 깜짝 놀라 자리 입장의 유리한 점들과 불리한 점들을 깨달았다"(108). 이는 성이 생물학적인 것보다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여성의 의복에 의해 사회적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 여성이라는 성의식이 비로소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비단 드레스는 "예쁘기 그지 없었지만" 그 옷을 입고 바다에 빠졌을 때 "헤엄치는 것"

은 불가능해 보였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안위를 수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여성의 의존적 처지를 깨닫게 된다(110). 옷이 부과하는 이러한 특징은 정신으로 스며들어 올란도는 더 이상 마음 놓고 혼자 공원을 산책하거나 텅 빈 집안을 밤중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되었다.

> 그녀는 여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자기 두뇌에 대해서는 보다 겸손해지고 있었으며, 용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다. [...] 옷의 변화가 이와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을 것이다. 사소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옷은 보온이라는 기증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옷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을 바꾼다. 예를 들어 바르토러스 선장이 올란도의 스커트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를 위해 당장 차양을 치게 했고, 고기 한 쪽을 더 먹으라고 강요했으며, 기다란 배를 타고 그와 함께 상륙하자고 제안했었다. 만약 그녀의 스커트가 길고 넉넉한 모양이 아니라 바지 모양으로 다리에 착 달라붙게 마름질되어 있었더라면, 이러한 배려는 없었을 것이다. (131-2)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옷을 만들지만, "옷은 우리의 가슴, 두뇌, 혀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든다. 이리하여 스커트를 입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 올란도는 눈에 띄게 변해, 심지어는 얼굴마저 달려져 보였다"(132)라고 울프는 말한다. 나아가 여성의 복장을 하는 것은 올란도의 시선조차 바뀌게 만들었는데, "남자는 세상이 마치 그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지고, 또한 그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세상을 정면으로 직시한다. 여자 올란도는 비스듬히 미묘하게, 심지어는 의심이라도 하듯 세상을 본다"(132). 그리고 당시 여성성의 특성은 "순결"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자들은 임신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으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크리놀린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스커트를 입었다. 빅토리아조 여인들이 자신의 삶의 성적인 면을 은폐하려는 덧없는 시도를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 사실을 더 잘 감추기 위해 크리놀린을 입지요. 이 위대한 사실, 단 하나의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탄스러운 사실, 모든 겸손한 여인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부정해보려고 기를 쓰는 사실, 곧 아기를 낳을 거라는 사실. 실제로 15내지 20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겸손한 여인네들의 인생은 결국 적어도 일 년에 하루는 드러나게 마련인 사실을 부정하려는 데 소비되고 만다. (161-2)

크리놀린이란 옷은 "그녀가 여태껏 입었던 어떤 옷보다 무겁고 우중충했다. 어떤 옷도 이보다 거추장스럽지는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개들을 데리고 정원을 활보할 수도 없고, 가볍게 언덕에 뛰어올라가 참나무 아래 몸을 던질 수도 없었다" (168).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의복의 속박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쳐 "평생 처음으로 복도에 귀신이 있지 않나 해서 무서워졌다"는 점이다. 이 시대의 여성상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순결"이었지만 30년 동안 남자였고, 여왕에서부터 집시여인까지 숱한 여성들을 경험한 올란도에게 있어 여성의 성은 "순결"이라는 의미로 귀착되지 않았고, 그에게 "여성"이라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였다 (108). 하지만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는 올란도는 이제 시대정신이 강요하는 대로 "기댈 수 있는" 남편을 찾아야 했다(168). 문제는 올란도가 지금껏 사랑한 것은 "여인들"이었고 "인간의 몸은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괘씸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비록 올란도가 여자이긴 하지만 그녀가 사랑한 것은 여전히 여자였다"(115). 올란도는 결혼을 하고 남성에게 순종하는 척하며 차나 따라야 하는 현실이지만 의미 없는 허세나 부리며 사형선고나 내리는 남자보다는 "인간 정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양된 환희를 즐길 수 있는" 여성이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113).

올란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 남녀들의 공통점은 양성성이다. 이는 외면적으로는 성구별이 애매한 복장으로 상징되고, 나아가 그 내면의 정체성 또한 여성성과 남성성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올란도를 쫓아 다니던 해리엣 대공부인도 올란도가 여성이 되자 해리 대공으로 변신하여 다시 등장한다(126-7). 마침내 올란도가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마마듀크 본쓰롭 셜머딘(Marmaduke Bonthrop Shermerdine)은 남성이자 여성인 인물로 묘사된다. 올란도는 셜머딘이 "여성"임을 알아보고, 셜머딘은 올란도의 "남성성"을 알아보고 받아들인다.

> "설, 당신은 여자예요!" 그녀가 외쳤다.
> "당신은 남자예요, 올란도!" 그가 외쳤다. (174-5)

그리고 그들의 결합에서 올란도가 여성이 된 후 거부되었던 놀의 상속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태어난다. 이들의 결합은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강조하는 '양성성의 결합'이다. 남자이자 여자인 셜머딘과 여자이며 남자인 올란도의 결합은 또한 400년만에 드디어 「참나무」라는 시를 완성케 한다. 양성의 조화를 이상으로 하

는 울프의 글쓰기의 이상은 여기서 결실을 맺고, 이 결실의 순간에 올란도의 모습은 "젖가슴을 달빛에 열어젖히고 [...] 진주알들이 달에 사는 거대한 거미 알처럼 빛났다"고 묘사된다(227). "영국으로 돌아오는 올란도"라는 표제를 단 사진에서 올란도로 분장한 비타는 커다란 진주 목걸이에 비단 숄을 걸치고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드러내어 신화 속의 풍만한 여신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111). 마지막 장면의 올란도의 모습은 이 사진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소설의 본질이 비타의 양성성과 신체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찬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400년 가까운 세월동안 갈고 닦여온 영문학의 전통이 성공적으로 여성성을 포용하여 「참나무」라는 상징적 시로 귀결되고, 이는 깊은 뿌리에서부터 생명을 꽃피울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한다. 현실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예술을 창조하는 작가의 상징으로 "달에 사는 거대한 거미의 알"처럼 빛나는 진주를 걸치고서 말이다. 이 순간 양성적 연인인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다. 그리고 기러기(wild geese)가 날아간다(228). 그녀는 평생 "기러기를 좇아" 다닌 것이다. 기러기 추적(wild geese chase)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우며 동시에 헛수고일 수도 있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울프는 400년 가까이 추적해온 올란도의 삶과 문학에 대한 전기가 어쩌면 이러한 "기러기 추적"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던진다. 양성성을 획득했다고 해서 문학이 목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학은 새로운 "기러기 좇기"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울프는 『올란도』라는 작품을 통해 여성과 글쓰기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판타지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풍자와 위트와 과장으로 가득한 작품은 그 독특한 실험정신에 있어 울프의 여타 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엘리자베스 조에 쓰였을 법한 미사여구와 찬탄으로 가득하고, 라블레(François Rabelais)의 가르강튀아의 모험(*The Life of Gargantua and of Pantagruel*)과 같은 환상의 세계를 보여준다.[3] 하지만 이 모험이야기도 당시를 살던 울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올란도가 걸고 있는 진주목걸이가 자아내는 거미줄로 작품을 단단히 얽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옷의 모양에 따라 입은 사람의 성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통찰은 이후 『세 개의 기니』에서 파시즘과 남성 중심 사회질서를 비판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이처

3) 중세 프랑스의 인본주의 작가 François Rabelais의 대표작 *The Life of Gargantua and of Pantagruel*. 황당무계한 모험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럼 옷은 단지 허영심 많은 여성들의 탐닉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 문명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옷이라는 모티프를 통해 『올란도』를 읽어보는 작업은 울프가 살던 1920-30년대의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과 전통과 현대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심리학적 역학관계를 새로이 짚어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해 준다.

(가톨릭대)

인용문헌

Balir, Kirstie. “Gypsies and Lesbian Desire: Vita Sackville-West, Violet Trefusius, and Virginia Woolf.”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50.2: 141-66.

Koppen, R. S. *Virginia Woolf: Fashion and Literary Modernity*. Edinburgh: Edinburgh UP, 2011.

Lee, Hermione. *Virginia Woolf*. London: Vintage, 1997.

Simmel, Geroge.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Selected Writings*. Ed. Donald N. Levine.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1971.

Woolf, Leonard, *Autobiography*. vol. 3. New York and Londo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8.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Granada, 1977.

_____. *The Diary of Virginia Woolf*. London: Penguin Books, 1982.

_____. “22 Hyde Park Gate.” *Moments of Being: Unpublished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Ed. Jeanne Schulkind. London: Sussex UP, 1976. 140-56.

_____. “Old Bloomsbury.” *Moments of Being: Unpublished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Ed. Jeanne Schulkind. London: Sussex UP, 1976. 157-80.

_____. “A Sketch of the Past.” *Moments of Being: Unpublished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Virginia Woolf*. Ed. Jeanne Schulkind. London: Sussex UP, 1976. 61-138.

_____. *Orlando*. London: Penguin Books, 1995.

_____. *A Passionate Apprentice: The Early Journals 1897-1909*. Ed. M.A. Leaska. London: Hogarth, 1990.

Abstract

Reading through Clothes: Rereading Virginia Woolf's *Orlando*

Heon-Joo Sohn

Fashion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the modern world, where clothes perform many functions: signifying the place of individual bodies in social, economic, and sexual orders, as well as being a commod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with the advent of literary modernism, clothes became a favoured metonym for modernity. Prompted by the late 19th century women's dress reform, women started to dress themselves in various garments: some to acquiesce the tradition and convention, others to resist them. Particularly, the lesbian women often adopted male garments or oriental clothes to express their sexual preferences. Avant-garde artists introduced new styles of fashion. Virginia Woolf and her Bloomsbury friends were among the cultural rebels. They threw fancy dress parties where they wore costumes to flout the established. The Omega Workshops offered unconventional clothes for women. Women's clothes served as a sketchbook in which to express many different things such as ideas, gender preferences, or belief systems.

Woolf's novel *Orlando* provides a rich text to read out these various aspects of clothes, social and individual, both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Woolf seems to use clothes as a metaphor for writing. As Orlando changes from a man to a woman, her clothes change accordingly and sometimes deliberately. By choosing clothes, Woolf seems to suggest, one's sexual identity can be changed. Adopting clothes of both sexes, Orlando transcends the sexual barrier of her body and mind, and eventually succeeds in acquiring the androgynous mind, which Woolf esteems as an ideal state of the mind for a writer. This paper will re-read *Orlando* in terms of clothes to explore the parallelism between clothes and writing and the dynamism between gender and writing intricately woven in the text.

■ Key words : Virginia Woolf, clothes, gender, writing, androgyny
(울프, 옷, 성, 글쓰기, 양성성)

논문접수: 2011년 11월 5일
논문심사: 2011년 11월 23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1일